

KIA '기록의 시즌 2024' 화려한 마무리

챔피언스리그 관중 125만9249명
'87승' 구단 최다승 타이 기록
김도영 143득점 '뽀 최다 타이'
'40-40' 달성은 다음 시즌에
한국시리즈 '11전 전승'
21일 'V12' 위대한 도전

KIA 타이거즈가 '기록의 시즌'을 만원 관중 앞에서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2024시즌 최종전을 치렀다. 올 시즌 144번째 경기가 열린 이날 경기 시작 1시간 20분을 남겨둔 오후 5시 10분 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이 모두 팔려나가면서 시즌 30번째 매진이 기록됐다.

9월 7일 광주 키움전부터 9경기 연속 매진이 이뤄졌다.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가득 차면서 올 시즌 KIA의 총관중수는 125만 9249명을 기록했다. 평균 관중은 1만 7250명으로 KIA는 올 시즌 관중 기록을 모두 새로 썼다.

KIA는 11번째 우승을 장식했던 2017시즌에 구단 첫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이해 홈 72경기에 102만 4830명(평균 1만 4234명)이 입장했고, 10차례 매진이 됐다. 격년제 홈경기 편성 원칙에 따라 KIA는 올 시즌 홈에서 73경기를 소화했다.

KIA는 올 시즌 30차례 매진을 이루면서 1만 2500석 규모의 무등경기장을 안방으로 이용했던 2009년에 기록한 팀 역대 최다 매진 기록인 '21회'도 넘어섰다.

만원 관중 앞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KIA는 10-5 승리를 거두면서, '87승'으로 2024시즌을 마무리했다.

87승은 2017시즌 기록한 구단 최다승 타이 기록이다. 승률로 따지면 올 시즌 0.613(87승 2무 55패)을 기록하면서 2017시즌 0.608(87승 1무 56패)보다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최종전에서 승리를 추가한 KIA는 2위 삼성 라이온즈와 9경기 차 1위로 정규시즌 결승선을 통과했다.

프로 3년 차에 '기록의 사나이'가 된 김도영의 '40홈런-40도루' 도전은 아쉽게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9월 23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38번째 홈런을 기록했던 김도영은 이후 5경기에서 답장을 넘기지 못했다. 시즌 최종전에서 5타석에 섰던 김도영은 안타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대신 김도영은 마지막 경기에서도 한 차례 홈을



'기록의 시즌'을 보낸 KIA 타이거즈가 'V12'라는 목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최형우, 김도영, 양현종, 이범호 감독, 서건창, 소크라테스.

(KIA 타이거즈 제공)

뺏으면서 '143득점'을 기록, KBO 최다 득점 기록을 넘어 아시아 단일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도 달성했다.

'143득점'은 1950년 일본 소치쿠 로빈스에서 활약한 고즈루 마코토가 기록했다.

토종 선수 첫 '40-40'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김도영은 141경기 나와 189개의 안타(39위)를 수확하면서 타율 0.347(39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득점 1위 김도영은 109타점(6위), 38홈런(2위), 장타율 0.647(1위), 출루율 0.420(3위), OPS 1.067(장타율+출루율+1위), 40도루(6위) 등을 기록하면서 주요 타격 부문 상위권 자리를 차지했다.

김도영은 또 두산 양의지와 함께 올 시즌 가장 많은 15개의 결승타를 장식했고, 10개의 3루타도 기록하면서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눈부신 시즌을 마감한 KIA는 짧은 휴가 뒤 'V12'라는 목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선수단은 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국시리즈를 위한 훈련을 시작한다.

KIA는 또 세 차례 연습 경기를 갖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30일 엔트리'도 확정하게 된다. 9-14일 연습경기를 소화하는 KIA는 16일에는 자체 연습 경기를 통해 한국시리즈 리허설을 한다.

대망의 한국시리즈는 21일 시작된다.

정규시즌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KIA는 한국시리즈 1-2차전을 안방에서 소화한다. 23일 휴식일 뒤 진행되는 3-4차전은 플레이오프 승자팀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이어 5-6-7차전은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한국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힘이 부족했다...페퍼스, 또 첫 승 불발

KOVO컵, 한국도로공사에 1-3패

높이를 키운 프로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분투했지만 컵대회 첫 승리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페퍼스는 1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조별리그 A조' 한국도로공사와의 맞대결에서 1-3(25-22 19-25 23-25 25-27)으로 패했다.

바르바라 자비치, 장위 등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과 박정아의 블로킹 등이 돋보였으나 세기가 부족했다.

이날 자비치가 23점을 올렸고, 박정아 15득점, 장위 13득점, 하혜진이 8득점을 기록했지만 도로공사를 꺾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29일 여자부 개막전 현대건설과의 대결에서 2-3으로 패했던 페퍼스는 이번 대회에서도 첫 승리를 거두는 데 실패하면서 예선 중간 성적 2패를 기록하고 있다.

페퍼스는 1세트에서 시작과 함께 연속 4득점으로 기세를 잡았다.

이후 도로공사가 따라붙으며 4-3 한 점 차를 만들었지만, 박정아와 장위, 박사랑이 탄탄한 수비를 선보이며 페퍼스는 9-3까지 달아났다.

자비치와 박정아가 10-6 상황 연이어 백어택에 성공하며 12-6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19-15 상황 박정아의 디그, 박사랑의 리시브에 이어 장위가 득점하며 페퍼스가 20점에 먼저 달았다.

23-20에서 박정아가 블로킹 득점에 성공하며 세



페퍼스 바르바라 자비치(왼쪽부터)와 박정아가 1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조별리그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맞대결을 치르고 있다. (KOVO 제공)

트포인트를 만들었다.

도로공사가 24-22로 점수차를 좁혔지만 자비치가 높이 내려 쏘는 공으로 마지막 득점을 올리며 페퍼스가 1세트를 쟁겼다.

2세트에서 페퍼스는 도로공사에 중반까지 팽팽하게 맞서 싸웠으나 후반에서 무너졌다.

12-11에서 도로공사 유니의 득점에 이어 박정아의 범실로 우위가 뒤집혔고 페퍼스는 추격에 나섰지만 17-19에서 도로공사가 연속 3득점한 뒤 흐름을 이어가며 2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세트스코어 1-1로 3세트가 시작됐다.

도로공사가 연속 4득점을 하며 앞서나갔고 페퍼

스가 3-4까지 따라잡았다.

5-5 동점 이후엔 계속해서 한점차 승부가 이어졌다가 페퍼스가 우위를 점하며 도로공사를 끌고 갔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19-19 동점을 기록한 뒤 역전하며 3세트를 승리했다.

4세트에서 페퍼스는 후반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치며 경기를 5세트까지 끌고 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19-19에서 도로공사가 먼저 20점 고지를 밟았고, 25-25 동점 상황 페퍼스의 범실과 도로공사 김현정의 블로킹 득점으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지켰다는데...

축구협, 전력강화위 회의록 공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축구협회는 1일 '2024 제10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미디어에 공개했다.

7일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협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회의록에 '회의록 공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축구협회가 공개한 10차 회의록은 15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로, 17명의 감독 후보군을 5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담겼다.

6월 21일 열린 이 회의엔 정해성 당시 위원장과 이영진, 윤덕여, 윤정환(준으로 참석), 박주호, 이미연, 고정운, 송명원, 전경준, 이상기 위원도 참석했다. 박성배 위원장은 당시 개인 상황으로 사의를 밝히며 불참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고, 이후 과정은 정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5명 사이엔 별도의 순위는 매겨지지 않았는데, 홍 감독은 외국인 감독 1명과 함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을 받은 정 위원장이 이후 5명을 3명으로 좁히고, 2명의 외국인 후보자를 화상 면접으로 먼저 검증한 뒤 홍 감독을 최종 협상 대상 1순위, 외국인 2명을 2, 3순위로 결정했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설명이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내용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보고한 뒤 정 위원장은 6월 말 일선상의 사유로 사임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후 이임성 기술총괄이사가 선임 후속 업무를 맡아 최종 후보자 3명과 대면 협상 면담을 진행했고, 최종 1순위였던 홍 감독으로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의록은 지난달 30일 10월 A매치 명단 발표 기자회견 중 선임 논란 관련 질문에 홍 감독이 "국회(9월 24일 현안질의)에 가보니 (전력강화위원) 전원 동의 여부 등 내가 들었던 말들과 조금 다른 게 있더라.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공개됐다.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은 "나도 답답하다. 국회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연합뉴스